New Leader Ⅱ.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할 변화의 바람 'Fresh Wind'

[출애굽기 15:10-11] 10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 같이 잠겼나이다
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1. 노아의 시대
- **'next'와 'new'의 개념** : 성경에서 리셋의 의미는 '시작'의 의미이다.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Great Reset'이다. 리셋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완전한 구별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

(1) 노아의 시대
[창세기 7: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를 리셋하기로 결정하신다. 노아의 부르심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방주는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사람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이다. 교회는 방주이다. 교회의 사명은 방주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즉, 마지막 '거대한 리셋'이 있다는 것이다. 심판의 리셋이 있다. 그 심판의 리셋이 주님의 재림이다. 그렇다. 교회는 바로 그때 '방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한다.

(2) 방주(게이트) -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7: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창세기 7:16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주를 완공한 후 방주의 문을 연 사람은 노아였다. 그런데 마지막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 이시다.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 방주의 문이 닫혔다. 아무도 방주의 문을 열 수 없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다. 과거의 어떤 영향력도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제 비가 온다. '리셋'이 시작된다. 그리고 방주는 새 하늘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새롭게 언약하신다.

[창세기 8:16-17, 21]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들과 언약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는 전과 같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다. 은혜이다.

(3) 구원 -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죄인의 자아, 사망과 저주가 언도된 옛 자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의 영향력, 옛 자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의 의미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방주이신 예수님의 게이트를 완전히 닫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과거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그리고 방주가 모든 심판이 끝난 후 새 땅에 도착한다. 바로 그 땅이 노아의 가족이 새롭게 살아갈 약속의 땅이다. 그들은 더 이상 심판의 세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온전한 세대로의 회복이다. 그들을 통해서 땅이 다시 복을 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복을 받는다. 모든 것이 새롭다.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차원이다.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은혜의 세대이다.

(4)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직접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곳,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곳이 있다. 마치 다윗이 통과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광야'이다.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과 약속'이다. 광야에 있지만 그들에게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인이다. 방주 안의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직 신뢰이다. 믿음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뿐이다. '뉴리더'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닫으시는 문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

2. 출애굽 – Fresh Wind

(1) 절벽

출애굽은 구원이다.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존재, 심판과 저주가 아닌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아 광야로 보내신 노아'를 통해 이루신다. 노아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자신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세를 '뉴리더'로 사용하신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출애굽기 14-15장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 앞에 홍해가 있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다. 사면초가의 절벽에서 그들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모세를 원망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는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2) 반전 – 홍해가 갈라지다.

바로 그때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진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반전'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넌다. 이것은 그들의 옛 자아가 물속에서 수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

*** '바로의 군대 – 사탄의 영향력'**

또 하나는, 바로의 군대 또한 홍해에서 수장되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실재적인 사탄의 영향력과 힘이 홍해 아래에 수장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모든 영향력을 물에 잠재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모세의 노래 – Fresh Wind

[출애굽기 15:10-11] 10 <u>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u>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 같이 잠겼나이다
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한다. 홍해의 기적을 노래한다. 이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승리의 세대가 수정바다 앞에서 부를 노래이다. 가장 강력한 노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홍해의 반전은 '바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주목하라. 사람의 바람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바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이다. 이것은 과거의 먼지와 같은 모든 것을 날려 버리는 바람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바람이다. 사탄의 영향력을 먼지처럼 날려 버리는 바람이다.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모세'와 같은 뉴리더가 필요하다.

(4) 성령의 바람, 창조의 바람, 생명의 바람.

ㄱ) '바람' (루아흐) :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명의 바람, 호흡을 불어 넣어 생령이 되었다. 이 바람이 오순절에 임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세대를 살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사도행전 2:17-18]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우리 모두를 살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뉴리더로 일어나라. 불어오라. 바람아. 성령의 바람아 불어오라. 마른 뼈들에게 불어오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새로운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불어 올지어다.

ㄴ) '회개' : 과거의 문을 닫고, 사탄의 모든 영향력을 무력하게 하며, 언약의 새 땅으로 들어갈 문!
회개의 바람아 불어오라. 생명의 바람아 불어오라!